

전 남

목포시 추진 각종 사업 뒷처리 짚짚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장의 사후처리가 엉망이어서 미관을 해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4일 본보가 보도한 양을산 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 3기의 묘지를 이장한 뒤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방치돼 입찰에 오르고 있다. 임시변통으로 산책로에 톱밥을 뿌려왔으나, 장맛비 때문에 톱밥이 산책로 주변으로 밀려 엉망이 된 상태다.

영문보도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목포시는 지난 5일 도터를 정비하면서 나무를 성의없이 심어 일주일

양을산 산책로사업 묘지이장 후 수개월째 방치

평화광장, 축제 후 조형물 철거 안해 미관 해쳐

이 지나기도 전에 고사하고 말았다. 또 지난달부터 연동(구 산정동) 주택가 한 중심에는 화물차량들이 무시로 주차해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소·대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바람에 파리가 끓고 악취가 풍기는 등 도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시당국과 동사무

소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불법차량 단속은 하지않고 실무자들이 벽에다 스프레이로 ‘X짜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새겨 되레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양문화축제와 갈치축제, 청소년 문화축제 등 순환 행사들이 개최되는 하당 평화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종 플래카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곳을 시멘트로 대충 발라

놓아 사고위험은 물론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생활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주택가를 돌고 지나가면 음식물 쓰레기 용기뚜껑이 열린 채 제꺼기들이 흘러나오는 곳이 적지 않은데, 도둑고양이들이 날뛰어 새벽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신흥동 서모(59)씨는 “이처럼 도심심각이 분진과 소음·악취, 미관장애 등으로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시와 동사무소 등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강진 “사랑의 끈 맺어요”

郡-공동모금회, 한사랑 나눔 협약

21일 강진군 실내체육관에서는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사랑의 끈 맺기 만남의 광장’이라는 대대적인 사랑나눔행사가 펼쳐졌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와 전곡소년소녀가장들이 시민연합 경기총연합회(회장 안봉진), 강진군이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후원자와 수혜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위로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받는 연례행사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강진군 끈 맺기 행사에는 공무원 390명, 기관단체·출향인·주민 등 529명의 후원자가 기부약정을 통해 매달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600여만원을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수혜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후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공동모금회와 강진군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후원하던 방식을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하



황주홍(오른쪽) 강진군수와 송영수 전남공동모금회장이 21일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사랑의 끈 맺기 만남의 광장’ 행사에서 ‘한사랑 나눔 협약식’ 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기로 하는 내용의 ‘한사랑 나눔 협약식’을 맺었다. 또 공동모금회는 지역내 9개 가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황주홍 강진군수는 윤천면 정인숙(46)씨에게 장한어머니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경기총연합회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21명의 학생들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한눈에 반한 쌀’ 순수 우리 종자로 키운다

해남군 외국품종서 전한... 옥천면일대 500여ha 시범재배

소비자단체에 의해 6년 연속 전국 우수 브랜드로 뽑힌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우리나라 순수 종자로 재배된다.

해남군은 한눈에 반한 쌀이 외국 품종인 ‘히토메보레’로 유통되고 있는데 국가 종자관리원에서 보급하는 ‘일미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옥천면 일대 50여 ha에 시범재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보급종으로 전환하면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고, 종자의 순도가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올해 ‘한눈에 반한 쌀, 우리 품종 단지조성’ 협약과 단지 회원교과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매뉴얼을 준수하고 과학적인 재배기술로 높은 품질의 원료곡을 생산하기 위해 옥천농

협과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300ha까지 단지화하고 완전자 가공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의 쌀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눈에 반한 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시행한 전국 쌀 우수평가회에서 6년 연속 베스트 쌀로 선정됐다. 가격은 10kg에 3만 6천원, 20kg에 7만원으로 다른 쌀보다 평균 1.5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무안반도 통합’ 상공인들 나섰다

‘서남권통합추진위’ 구성

목포와 무안·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 움직임에 지역 상공인들이 나섰다.

전남 서남권 지역 상공인을 주축으로 한 ‘서남권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주영순)’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목포상공회의소 주영순 회장은 22일 오전 목포시의 대회의실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서남권의 큰 틀을 다지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무안반도 통합에 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통합운동에

매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무안반도 통합이 무산돼 서남권이 못하고 나서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정부의 이번 시·군 자율통합 추진은 우리 지역에 한단계 도약할, 다시무 한 기회로 되고 있다”면서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정부로부터 최소 4천300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유발 효과도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또 “정부 지원금은 무안과 신안 발전에 쓰여질 것이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안반도 통합에 지역 주민이 동참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동물질병진단 국제표준화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19일 한국품질보증원(KQA)에서 인증하는 동물질병진단절차 국제표준화(ISO 9001/KSQ 9001) 자격을 획득해 동물 질병 진단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 질병진단 업무처리 체계 등 진단절차는 진단서, 진단시약, 진단장비를 비롯한 시료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동물질병진단절차 국제표준화 인증은 바쁜 전남도민들이 “국제표준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기관으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2월 추진팀을 구성, 8월 심사를 통과해 획득하게 됐다. /최권익기자cki@



강진 만년마을 6년근 인삼 수확 강진군 도암면 만년마을 김명환(36·왼쪽)씨가 인삼포장에서 6년근 인삼을 수확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도암면내 4능가는 12ha에서 100t의 인삼을 생산, 한국인삼공사에 전량 계약판매 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홍도·흑산도, 대규모 숙박시설 가능

일부지역 국립공원 제외 등 규제완화 추진

그동안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있던 신안 홍도 일부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되고 흑산도에는 경비행장 건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09년 시·도경제협의회’ 결과 수립된 동안 자연공원법 때문에 숙박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개발이 제한됐던 신안 홍도와 흑산도에 대해 대폭의

규제 완화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규모 숙박시설 설립이 계획된 신안 홍도 2구 민자사업지구는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자연공원법상 공원원림마을지구(20호이상)에 포함돼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설치 불가능해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또 흑산도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려는 사업도 엄격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권익기자cki@

휴가철 인명사고 ‘0’

다도해공원서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가 재난안전관리반을 운영, 단 한건의 인명사고 없이 여름 휴가철을 넘겨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성수기에는 지난해 대비 5% 증가한 9만8천143명의 탐방객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초 조도군 조도면 관매도 해수욕장을 찾는 여고생 6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위급한 상황에 빠졌지만, 재난안전관리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하게 구조했다.

또 재난안전관리반은 철과상 등 부상을 입은 탐방객을 응급조치를 하는 등 총 23회, 25명에게 구조조치를 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공원구역 청소 등 앞장서 총 32회, 1t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반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 탐방객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조원갑기자 wnch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CITY,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in different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정심 正視 正行' (Jeongsim),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Solar Power Plant Site Urgently Needed),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Advertisement for '다사랑(유통)' (Dasarang), a distribution company, listing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food and beverages.

Advertisement for '남성성기능강화제' (Men's Sexual Function Enhancement Supplement), listing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